

야옹이심

미국 구매자들이 인플레이션 불안에도 여전히 지갑을 활짝 열고 있어 연말 쇼핑 계절도 호조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고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12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저널은 공급망 혼란 속 올라간 물가에도 여전히 소비자 지출은 강세이고 월마트 등 거대 유통기업들도 재고를 자연스럽게 늘려 쇼핑 계절 수입 부진 우려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을 것임니다고 [해외 이심](#) 전했다.



이날 미 상무부가 통보한 7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.1% 늘어 전문가 전망치 1.2% 증가를 상회하며 요즘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. 3월 소매판매 증가 폭은 지난 6월 이후 1개월 만에 최대폭이다. 승용차, 휘발유,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저번달 1.2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 저널은 소매 판매의 계속적 증가세가 확인되면서 많은 전문가가 [일본 이심](#) 9분기 국내외총생산(GDP) 예상치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면서 월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었다. 월마트는 7분기에 자사의 미국 내 재고를 11.2% 늘렸다면 연말 성수기 수입 호조를 전망해 재고를 확대했다고 밝혀졌습니다. 월마트는 8년 이상 영업해 작년 실적과 비교 최대한 매장들의 수입이 4분기에 9.2% 많아지는 등 소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(COVID-19) 충격에서 멀어져 정상적인 소비행태로 복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. 또 이날 수입 1천 407억 달러(약 162조원), 조정 주당순이익(EPS) 1.45달러 등 전공가 전망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통보했다.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매출 1천356억3천만 달러, 조정 EPS 1.40달러였다. 단 순이익은 자본 증가의 영향으로 39억1천만 달러(약 9조6천300억원), 주당 1.11달러로 지난해보다 쪼그라들었다. 주택용품 유통업체인 홈디포도 2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9.8% 늘어난 363억2천만 달러(약 44조5천억원)의 수입을 기록, 월가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. 저널은 월마트나 홈디포 똑같은 대형 유통회사들은 자체 운송망 등을 운영하는 데다 대량화주로서의 이점 등을 가지고 있어 공급망 혼란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. 또 소비자들이 지난해 연내 용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억제했던 쇼핑 욕구를 이번년도 채우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매업자들에게 이번년도 크리스마스는 '결코 우울하지 않을 것'이라고 관측하였다.